

여기를 누르시면 인쇄가 시작됩니다.

empas메일

박영숙 (urionni@empal.com)

보낸 사람	이정이 <fromdk@beautifulfund.org>
받는 사람	urionni@empal.com
받은 날짜	2005년 08월 18일 15시 14분
편지 제목	[원고청탁] 아름다운재단 5주년 맞이

박영숙 이사장님께

아름다운재단 이정이 국장입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못드리고 이렇게 불쑥 연락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후에 강경희 총장님하고 통화후 죄송스럽지만 청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여성계 대표원로이시고, 공익재단의 선배 재단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말씀을

들려주실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죄송스럽습니다.

2000년 여름 아름다운재단이 첫 걸음마를 뗀후 어느새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 국민을 나눔에 초대하자며, 작은이들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벗이 되자며
쉽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지만 돌아보면 한없이 미숙하고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재단의 굵이굵이마다 힘이 되어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사람 냄새와 추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 9월 8일(목) 저녁 6시30분,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아름다운재단 5주년 맞이 "행복한 순간, 아름다운 기억"에 초대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재단 5주년 맞이 "따뜻한 조언" 내지 "따뜻한 격려"를

5주년 기념 자료로 엮어 발간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와 같이 귀한 글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맞아도 싸다, '손들을래, 맞을래' or '참,잘했어요' 격려나 칭찬 메시지
(둘다 섞여도 좋습니다.)
- 매수 : A4 용지 2/3매 이내, 10포인트, 행간 160 포인트
- 마감 : 8월20일(토) 오후 3시 (너무 촉박해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재단의 또 하나의 기억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이 드림

아름다운재단 이